

●문화재청공고 제2023-26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6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해제 및 변경 예고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해제 및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현재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비고
1	보물 (1963.1.21. 지정)	이순신 장도 (李舜臣 長刀)	2병	최** (현충사관리소)	기존 보물 '이순신 유물 일괄 -장검'임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4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 (金正喜 筆 不二禪蘭圖)	1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2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機張 古佛寺 靈山會上圖)	1폭	대한불교조계종 고불사
3	과주 보광사 동종 (坡州 普光寺 銅鍾)	1구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4	불조삼경(佛祖三經)	1책(합철본, 41장)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추가지정·명칭변경·지정해제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지정사항	문화재명	변경 전 세부목록	변경 후 세부목록	비고
1	보물 (1963.1.21. 지정)	이순신 유물 일괄 (李舜臣 遺物 一括)	장검 2병	-	국보 지정 예고에 따른 보물 지정해제 예고
			옥로 1구	좌동	
			요대 1구	요대 및 요대함 2건 2점	요대함 보물 추가지정 예고
			도배구대 1쌍	복숭아모양 잔과 받침 2조	

라.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boh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사유 1부.

【국보 지정 예고】

□ 이순신 장도(李舜臣 長刀)

- 지정현황 : 보물(1963.1.21. 지정)
- 명 칭 : 이순신 장도(李舜臣 長刀)
- 소유자(관리자) : 최**(현충사관리소)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현충사
- 수 량 : 2병
- 규 격
 - 장도1: 칼몸 196.8cm, 칼날 137.3cm, 칼자루 59.5cm, 무게 4.32kg
 - 장도2: 칼몸 197.2cm, 칼날 137.8cm, 칼자루 59.4cm, 무게 4.20kg
 - 칼집1: 칼집 길이 144.5cm, 가죽 끈 길이 87.0cm, 무게 1.40kg
 - 칼집2: 칼집 길이 144.5cm, 가죽 끈 길이 92.0cm, 무게 1.24kg
- 재 질 : 금속, 나무, 어피 등
- 조성연대 : 조선시대(1594년)
- 제작자 : 태귀련(太貴連), 이무생(李茂生)
- 사 유

‘이순신 장도’는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된 칼로 길이가 약 2m에 달하며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한 쌍이 각각 칼집을 갖추고 있다. 칼자루는 나무에 어피를 감싸고 붉은 칠을 하였으며, 일부분만 직사각형의 금속판을 댄 후 가죽끈을 X자로 교차해 감고 끈 위에 검은 칠을 하여 칼자루를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였다. 외날의 칼날은 칼등 방향으로 조금 휘어 있으며, 칼날의 단면은 칼날의 위쪽과 아래쪽의 각도를 보았을 때 가장 보편적인 육각도(六角刀) 단면을 보이고 있다. 칼날 위쪽 부분에는 이순신이 직접 지은 시구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과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기록은 『이충무공전서』(1795)의 기록과 일치한다. 나무를 깎아 만든 칼집에는 패용할 수 있도록 가죽끈을 매달았다.

이 칼은 스페에 제작시기와 제작자 기록이 새겨져 있다. 스페는 칼자루 속에 박히는 뾰족하고 긴 부분으로 칼자루와 칼날의 결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데 일제강점기의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두 자루 모두 스페에 ‘갑오사월일조태귀련이무생작(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이라는 동일한 내용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순신 장도’는 조선시대 군용 도검 형식이며 전통적인 조선식 환도에 해당한다. 나무틀 위에 어피를 감고 주칠을 한 칼자루,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기를 만들어 칼자루 표면에 부착한 금속

판, 은입사기법으로 장식한 전통무늬, 칼날에 새긴 명문과 물결무늬, 칼집의 패용 장식과 가죽끈, 칼집 상단의 테두리와 하단의 마개 등은 조선의 도검에서 보이는 전통적인 양식들이다. 여기에 당시 칼 제조기술이 발달한 일본 칼의 요소가 도입되어 적용되었는데 스페와 칼자루를 결합했을 때 구멍을 맞추고 못을 끼워 고정하기 위한 목정혈(目釘穴), 칼자루를 단단하게 쥌 수 있도록 가죽끈을 X자로 교차해 감은 방식, 칼날이 휘어진 곡률이나 혈조(血槽, 피홈)를 넣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순신 장도’는 다음의 이유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 첫째, 『이충무공전서』의 기록과 일치하는 칼날에 새겨진 시구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 가치가 탁월하다. 둘째, 칼자루 속 스페에 1594년 태귀련, 이무생이 제작했다는 명문이 남아 있어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다. 셋째, 군사사 분야에 있어서도 조선 도검의 전통 제작기법에 일본의 제작기법이 유입되어 적용된 양상을 밝힐 수 있으므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 넷째, 칼날의 예리함과 견고함, 칼날에 새긴 명문 및 물결무늬 선각장식의 기술성, 칼자루 칼집의 테와 고리를 장식한 은입사기법, 가죽·금속·철 등 다양한 전통공예의 조화로운 활용, 세련된 균형미와 조형감각 등 제작기술과 예술성 역시 우수하고 완성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보물 지정 예고】

□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金正喜 筆 不二禪蘭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金正喜 筆 不二禪蘭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전체 92.9×47.8cm, 화본 55.0×30.6cm
- 재 질 : 지본묵서(紙本墨書)
- 형 식 : 액자
- 조성연대 : 1850년대
- 제작자 : 김정희(金正喜)
- 사 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는 10대 때부터 묵란(墨蘭)을 즐겨 그렸던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난(蘭)’이라는 화목(畫目)으로 남긴 마지막 작품이다. 김정희는 문인화 중에서도 사란(寫蘭)에 대해 일찍부터 심취하였는데, 이 작품은 그림 그리는 법이 아니라 글씨 쓰는 법으로 그린 그림으로, 난초를 그릴 때 서예의 필법으로 해야 한다는 자신의 화론을 조형화한 것이다.

달준(達俊)이라는 인물에게 그려준 이 작품은 화면 가운데 난초를 열은 담묵으로 그리고, 그 주변

으로 회화사상 보기 드문 수준의 높은 격조를 담은 제시(題詩)와 제사(題辭)를 4군데에 썼다. 그 글씨는 예서 등 여러 서체를 섞어 썼으며, 자형의 대소(大小) 차이가 크다. 또한 화면에는 15과의 인장이 찍혀 있는데 김정희의 인장이 4과, 김석준(金奭準, 1831~1915)의 인장이 2과, 장택상(張澤相, 1893~1969)의 인장이 6과, 손재형(孫在馨, 1902~1981)의 인장이 2과이며, 1과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선화(禪畵) 형식을 취하고 있는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는 문인화의 이상을 추구하였던 김정희의 예술적 경지와 일체의 분별심을 벗어나고자 하는 불교적인 정신세계가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 문화사를 상징하는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 세계를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작품으로 높은 예술적·학술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장을 통해 전승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는 역사성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機張 古佛寺 靈山會上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機張 古佛寺 靈山會上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고불사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28번길 77, 고불사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170.5×227.0cm
- 재 질 : 비단 바탕에 채색(絹本彩色)
- 형 식 : 미상
- 조성연대 : 1736년(영조 12)
- 제작자 : 미상
- 사유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화기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36년(영조 12)이라는 제작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이다. 화기에 제작 화승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존상의 특색 있는 머리 모양, 여래를 중심으로 짜임새 있고 안정적으로 구성된 구도와 배치, 채도가 낮은 적색과 녹색의 강한 대비 등으로 볼 때 경북지역, 특히 팔공산 일원에서 활약한 의균, 세관 등의 화승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비단 바탕에 채색으로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이 범화경을 설법하는 순간을 표현하였는데, 주형 광배를 갖추고 불단 형식 대좌에 결가부좌한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지장보살 등 8위의 보살과 사천왕, 십대제자 등의 권속들은 위계와 역할에 맞게 좌우로 배치하였다. 주존이 앉아 있는 불단에는 묵서로 주상전하, 왕비전하, 세자저하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축원문이 적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드문 편이다.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한 영산회상도이면서 권속으로 아미타팔대

보살에 속하는 지장보살이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형식은 19세기 경상도 일대와 서울, 경기도에서 제작되는 후불도의 한 유형으로 이 작품은 18세기 전반 팔공산화와 화승에 의해 새로운 형식의 후불도가 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석가 신앙과 아미타 신앙의 융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조선 후기 불화의 형식과 신앙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다. 더불어 도설된 내용과 화기에 기록된 화제가 일치하여 이 시기 영산회상도 도상 연구에 기준이 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파주 보광사 동종(坡州 普光寺 銅鍾)

- 지정현황 : 경기도 유형문화재(1995.8.7. 지정)
- 명 칭 : 파주 보광사 동종(坡州 普光寺 銅鍾)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474번길 87, 보광사
- 수 량 : 1구
- 규 격 : 전체 높이 94.9cm, 입지름 64.1cm
- 재 질 : 청동
- 형 식 : 쌍룡의 종뉴를 가진 동종(불교의식구)
- 조성연대 : 1634년(인조 12)
- 제작자 : 천보(天寶), 상륜(尙倫), 선잠(善岑), 경립(敬立)
- 사 유

‘파주 보광사 동종’은 기문(記文) 형식의 주성기(鑄成記)를 통해 천보(天寶)가 상륜(尙倫), 선잠(善岑) 등과 함께 청동 300근을 들여 1634년(인조 12) 제작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동종이다. 이 동종은 중국종의 형식을 수용하는 동시에 우리 고유의 미감을 반영하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조선 전기(15~16세기) 범종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음통이 없는 쌍룡의 종뉴와 종의 몸체를 횡대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 특징이다.

‘파주 보광사 동종’은 세 줄로 만든 횡대로 종 몸체가 상단과 하단으로 나뉜다. 상단에는 분할주조방식을 엿볼 수 있는 형틀 분리의 모습이 보이며,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과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이 자리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범종 중 처음으로 란차문자라는 새로운 범자체를 사용한 독창성이 돋보인다. 하단에는 반듯한 해서체로 적은 주성기가 보이는데 이를 통해 동종의 제작연대와 목적, 봉안 지역과 사찰, 발원자와 후원자, 장인과 재료 등 중요하고 다양한 내력이 분명하게 확인되어 사료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 동종은 천보(天寶)의 마지막 작품으로 조선 전·후기의 접점에 있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예사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틀을 이어 붙여 주물하는 분할주조방식으로 제작된 단초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천보의 제작기법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동종 제작기법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원 봉안처를 떠나 이운(移運)의 역사가 많은 다른 범종들과 달리 보기 드물게 최초 봉안처에서 온전히 그 기능을 수행하며 잘 보존되어 온 점에서 그 역사성도 인정될 수 있어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 불조삼경(佛祖三經)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불조삼경(佛祖三經)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67, 석왕사
- 수 량 : 1책(합철본, 41장)
- 규 격 : 24.9×17.7cm(半郭: 20.0×14.9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중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361년(공민왕 10)
- 사 유

‘불조삼경’은 중국 원나라 고승인 몽산(蒙山) 덕이(德異, 1231~1308)가 석가(釋迦)와 조사(祖師)가 설법(說法)한 3가지의 경전을 결집한 불서(佛書)이다. 석가가 성도(成道)한 뒤에 처음으로 설법한 내용인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 석가가 열반에 들기 전 남긴 마지막 설법 내용인 『불유교경(佛遺教經)』, 위양종의 창시자인 당나라 고승 위산(滙山) 영우(靈祐, 771~853) 조사의 어록인 『위산경책(滙山警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교의 교훈적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교 경전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석왕사 소장인 ‘불조삼경’의 경우 『불설사십이장경』은 후한(後漢) 때 인도의 승려 가섭마등(迦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이 한역(漢譯)한 것이고, 『불유교경』은 후진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한역한 것이며, 『위산경책』은 위산 영우의 어록으로 3종 모두 송나라의 수수(守遂)가 주석(註釋)한 것이다. 이 책은 1286년에 몽산 덕이가 지은 「서(叙)」(2장)와 『불설사십이장경』(12장), 송나라 진종(眞宗)의 「대송진종황제주유교경서(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序)」(1장)와 『불유교경』(12장), 남송 장수(張銖)의 「주위산경책서(注滙山警策序)」(1장)와 『위산경책』 및 「간행질(刊行秩)」(12장)로 구성되어 있다.

석왕사 소장인 ‘불조삼경’은 원나라 판본을 저본으로 1361년(공민왕 10) 전주의 원암사(圓嶠寺)에서 번각한 목판본이다. 권말에 간기(刊記)와 유판처(留板處) 기록이 있어 비구 행심(行心)이 발원하고 법공(法空)이 간행의 책임을 맡아 윤선(尹善) 등의 도움으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조삼경’의 고려시대 판본은 현재 3종만이 알려져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1341년(충혜왕 복위 2)의 정각사 판본, 1361년(공민왕 10)에 전주 원암사에서 간행된 판본 및 1384년(우왕 10)에 간행된 판본이 현존하고 있다. 지정 예고 대상 ‘불조삼경’은 이미 보물로 지정된 타 소장본보다 인쇄 및 보존상태 등 선본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보물 추가지정 예고】

□ 이순신 유물 일괄(李舜臣 遺物 一括)-요대함(腰帶函)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이순신 유물 일괄(李舜臣 遺物 一括)-요대함(腰帶函)
- 소유자(관리자) : 최**(현충사관리소)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현충사
- 수 량 : 1건 1점
- 규 격 : 최대 지름 48.5cm, 몸체 높이 7.20~7.42cm, 뚜껑 높이 7.73~7.81cm
- 재 질 : 나무
- 조성연대 : 조선 후기
- 사 유

‘요대함’은 ‘이순신 유물 일괄’의 ‘요대’를 담아 보관했던 원형의 나무함이다. 경첩이나 별도의 잠금장치는 없이 위함을 아래함 위에 뚜껑처럼 덮는 형식이다.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 일정 간격으로 칼집을 넣어 세우고 판재에 베싸기를 해 칠을 하였는데 겉은 흑칠, 안은 주칠을 하였다. 이 ‘요대함’은 조선의 전통적인 공예기법과 높은 기술수준으로 제작되었고, 비슷한 다른 유물들에 비해 크기가 매우 크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또한 당시의 관복 및 요대의 보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학술적·자료적 가치도 높다.

따라서 ‘요대함’이 기 지정된 ‘요대’와 함께 보존될 때, 해당 유물의 가치가 동반 상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존·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유로 ‘요대함’을 지정범위에 추가해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지정 예고 사진】

○ 국보 지정 예고



<이순신 장도>

○ 보물 지정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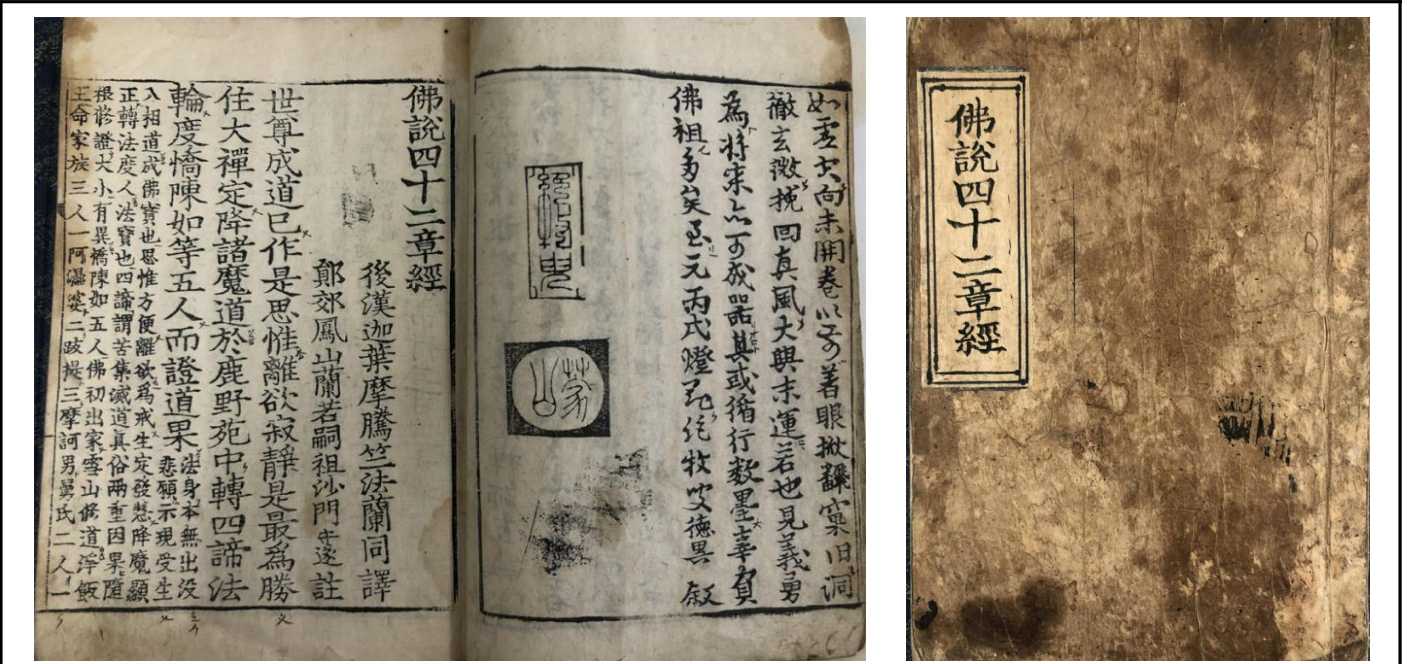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파주 보광사 동종>



<불조삼경>

○ 보물 추가지정 예고



<이순신 유물 일괄-요대함>